

#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학교’에 대한 실증적 검토 -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수상마을을 대상으로 -

## Empirical Review on ‘Schools’ for Community Revitalization

- Focusing on Villages That Have Won “Contest for Making Happy Rural Communities” -

변 경 화\*  
Byun, Kyeonghwa

### Abstract

This study is conducted to provide an empirical review on how schools play a pivotal role in the regional communities. For this, the use of closed schools, activities to revive small-scale schools, and activities related to nearby schools outside the village were analyzed for villages that have participated and have been awarded in the *Contest for Making Happy Rural Communities* by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The results of this are as follows. Out of 204 villages that won the contest, there were 19 cases of school closures. Of these 19 cases, there are 17 cases in which the closed school facilities still exist. For the two remaining cases, there are no buildings and only the site remains. To summarize the use of these schools, the functions are being combined and are determined within the range that local residents can operate. The impact or success factors on the region can be summarized into five main categories through the revival of schools in the crisis of closure. First, it was an opportunity to lay an organizational foundation for village projects in the future by reorganizing the village's organization, such as the formation of a village promotion committee to revive the schools. Second, it did not just introduce outsiders to increase the population, but supported housing and jobs for them to successfully settle down. Third, a cultural community was created with senior and junior residents, and finally, the residents became teachers or formed a village education communities such as lifelong education. In the relationship with schools existing outside the village, activities with members of the surrounding schools and linked activities are being carried out in the sense of “school”.

주요어 : 커뮤니티 활성화, 폐교,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Keywords : Community Revitalization, Closed Schools, Invigoration project of the Small-scale School, *Contest for Making Happy Rural Communities*

## 1. 서론

### 1.1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에서 학교가 갖는 의미는 공간이나 건축 등의 물리적 환경이나 시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학교는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장소와 공간이면서도 존중받는 가치가 함유된 문화적 거점이다. 그래서 학교는 지역 환경의 가장 좋은 장소에 만들어져 왔다.

초등학교는 아이의 발로 다닐 수 있는 범위 내에 세워지기 때문에 학교는 지역 커뮤니티의 공간적 범위를 결정짓는 요소이기도 하다. 그래서 학교는 지역사회의 정신적·문화적으로 상징적인 역할을 해왔다.

학교가 다음 세대를 보육·육성하는 장이며 지역 사회 주민들의 연대와 연대형성의 장으로서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는 누구도 이견을 제시하지 못할 것이다. 다음 세대를 능동적으로 키우기 위해 학생을 키우는 학교 환경의 양과 질을 정비하는 동시

에 학생 수를 확보할 수 있는 지역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현대는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시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와 맞물려 농촌지역의 인구감소는 농촌의 공동화를 초래하였으며 농촌지역의 학교들이 위기를 맞고 있다. 농촌마을에서 학교는 단순한 교육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연계된 공공재로서 마을의 유지·존속이나 마을의 해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농촌마을에서 학교는 존재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며,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에서 학교는 귀중한 자산이 된다.

마을공동체가 ‘학교’라는 교육시설과 함께 공존·공생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농촌지역의 학교와 지역사회가 겪고 있는 당면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학교와 지역공동체가 협력하여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고 그 힘을 기반으로 함께 살아가는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에 참여해 수상한 마을을 대상으로, ‘학교’를 매개로 한 주민들의 활동과 노력을 파악하고, 이것이 커뮤니티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 (전)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연구관, 공학박사  
(Corresponding author : formerly affiliated with Committee on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bkhwa3@daum.net)

## 1.2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에 참여해 수상한 마을<sup>1)</sup>을 대상으로, ‘학교’를 매개로 한 주민들의 활동을 파악하고, 이것이 커뮤니티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검토를 목적으로 하였다.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는 주민과 지자체가 콘테스트 참여를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개선을 위한 마을간 선의의 경쟁과 농촌공동체 활성화 도모를 위한 행사로, 2014년에 시작하여 2023년 10회째이며, 2023년 7월 현재에는 평가 등이 진행 중이다.

따라서 본 행사에서 수상이 이루어진 경우는 9회까지이며, 그때까지 수상마을은 총 212개이다. 이 중 연차를 달리하여 2회 수상한 마을이 8개 존재하여, 본 연구의 최종 대상은 204개 마을이다. 행사를 주최하는 농림축산식품부는 행복농촌마을 콘테스트에 참여해 수상한 마을이 제출한 마을소개, 커뮤니티 활성화 노력, 각종 마을사업 실적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수상마을 사례집」을 매해 발간한다.

연구 방법은 먼저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수상마을 사례집」총 9권을 검토하여, 폐교 활용, 학교살리기, 마을 외부의 학교와 연계한 활동, 그리고 마을에서 진행되는 각종 마을학교사업 및 프로그램 등 학교와 관련된 커뮤니티 활동을 추진한 마을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학교와 관련하여 진행된 활동을 분류하고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해당 마을에 대한 현장조사와 인터뷰 등을 진행했다. 인터뷰 대상은 마을이장, 마을 영농조합법인 대표, 사무장 등이다.

## 1.3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이하, 콘테스트)는 주민과 지자체가 콘테스트 참여를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개선을 위해 마을간 선의의 경쟁 및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행사로 2014년 시작하여 2023년 10회째에 접어들었다.

콘테스트는 마을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행복마을만들기’라는 명칭으로 시작했다. 2020년 마을만들기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농촌만들기’ 분야가 추가되어,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콘테스트 진행과 유사한 해외사례를 보면, 독일은 1961년부터 ‘우리 마을에 미래가 있다’는 슬로건 아래 농촌마을 콘테스트를 실시하여 선의의 경쟁을 통한 지속가능한 우수마을 만들기에 성공하였다. 독일은 물론 다양한 농촌정책을 추진하는 유럽국가에서도 마을만들기 콘테스트 및 우수마을 선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sup>2)</sup>

콘테스트를 통해 매해 20개~27개 마을을 선정해 금상, 은상, 동상, 입선으로 구분하여 수상한다. 9회까지 총 212개 마을이

1) 농촌만들기 분야의 ‘농촌지역개발 우수’와 ‘농촌빈집·유휴시설활용 우수’는 신청 단위가 면단위이고 신청대상이 건축물이나 신청단위를 공동체라는 관점에서 마을로 통칭해서 표현한다.  
2)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https://www.raise.go.kr/contes>)

수상되었으며, 이 중 8개 마을은 연차를 달리해 2회 수상해, 수상 마을은 명확히 208개이다.

제1회(2014년)부터 제9회(2022년)까지 콘테스트에 신청한 마을은 총 21,879개로 평균 2,431개이다<Fig. 1>. 신청 수를 보면, 5회(2018년)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해 2018년 가장 많은 신청이 이루어졌다.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감소되었고 행사도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다.

우리나라 행정리가 37,840개<sup>3)</sup>이므로 단순 집계하면, 5개 마을 당 3개 마을은 한번 씩 신청한 셈이 된다. 2020년부터 수상 분야가 마을만들기와 농촌만들기로 구분되어 행정리뿐 아니라 읍·면단위도 신청할 수 있는 범위이지만, 매우 높은 신청 수준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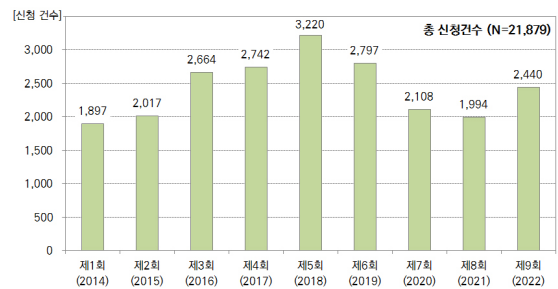


Fig. 1. Number of applications to Contest for Making Happy Rural Communities

## 2. 선행연구 고찰<sup>4)</sup>

지역사회와 학교와의 관계에서는 기본적으로 학교는 공공재라는 관점이 함축되어 있다. 이화룡<sup>5)</sup>은 학교시설의 공공성에 대한 교육 서비스 역할로서 교육적 공공성과 공동이익, 사회적 역할로서 심미적 공공성과 공동체의식이라는 4가지 측면을 제시하였다.

도시, 지역개발, 농촌건축 분야에서 이러한 관점에서의 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는 지역 활성화와 마을공동체의 지속적 관점에서 학교살리기 관련연구이다. 둘째는 학교 시설 자체의 활용에 대한 연구로서 폐교 활용이나 학교시설 복합화 등이 해당된다. 셋째는 마을교육공동체, 마을학교 등에 대한 연구이다.

1982년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은 소규모학교가 증가에 따른 교육재정의 비효율성이라는 경제논리가 적용되면서 소규모 학교의 존치 여부, 정책 및 통폐합의 당위성에 대한 논쟁을 가열시켰다. 이 정책은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와 농촌인구의 유출 현상과 맞물려 농촌공동체 해체라는 위기를 불러왔다. 이에 따라 소규모학교 살리기와 폐교위기에 직면한 사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촉발시켰다.

3)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2021.12.31.현재)  
4) 변경화·김승근의 연구(제주도 농촌지역의 소규모학교 살리기를 위한 마을임대주택사업과 빈집사업 현황고찰,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20(4), 2018, pp.85-94.)를 토대로 수정 및 보완하였다.  
5) 이화룡, 학교시설의 공공성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시설학회지, 15(1), 2008, pp.26-33.

조금주는 경제적 논리를 앞세워 소규모학교들을 통폐합하기 보다는 지역적 특성 및 사회경제적 환경을 고려하여, 소규모학교 운영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박계식<sup>7)</sup>과 임선빈<sup>8)</sup>은 폐교위기를 극복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 지역 학부모, 교육시민단체, 교육공동체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제기하였다. 관련하여 최종성<sup>9)</sup>은 농촌학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구조적 맥락에서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

학교 통폐합정책이 추진되면서 방치된 폐교, 공공재로서 학교 역할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학교시설의 공동체적 이용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폐교 활용의 관점에서는 폐교재산의 교육, 사회복지, 소득증대 등과 같은 공공성의 목적으로 폐교 활용을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 방안<sup>10)</sup>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한 학교시설의 공동체적 이용은 ‘학교시설 복합화’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학교시설 복합화는 학교시설과 지역시설과의 기능분담<sup>11)</sup>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지역주민의 요구<sup>12)</sup> 등에 대해 다루어지고 있다. 다만 학교시설 복합화 관련 연구들은 농촌지역보다는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판단된다.

학교살리기와 학교시설의 공동체적 이용 등은 제도권 학교와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최근에는 평생교육, 마을공동체, 마을학교 등 지역사회에서 학교와의 연계·협력에 기반한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sup>13)</sup> 지자체에서도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교육공동체 구축과 마을교육자원 발굴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3.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학교 의미와 역할

#### 3.1 폐교 재활용을 통한 커뮤니티 활성화

본 연구의 대상마을인, 콘테스트에서 수상한 204개 마을에서 폐교가 발생한 경우는 19건으로 나타났다<Table 1, Fig. 3>. 이 중 건물이 현재까지 존재하는 경우는 17건이며, 나머지 2건은 건물은 존재하지 않고 부지만 남아있다. 폐교 전 학교급은 초등학교(분교장 포함) 10교, 나머지 2교는 중학교(분교장 포함)에 해당한다.

학교 설립시기를 보면 193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가 대부분이지만 학교설립 당시의 건물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 50년대 이

전 설립된 학교들은 장소 이전 또는 노후화되어, 70·80년대를 거치면서 교사가 신축되었다. 따라서 <Table 1>에 기록된 설립 연도는 학교인가 연도로서 학교 건물의 신축 시기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10개 학교는 초등(중)학교로 설립되었으나 분교장을 거쳐 통폐합되었고, 8개 학교는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상태에서 폐교되었다. 설립당시부터 분교장인 경우는 군위군 고로초화산분교장(NO.8)이다.

폐교된 시기를 보면, 가장 이른 연도는 1993년이며 가장 최근은 2014년으로 19개 학교가 그 20여년 동안에 폐교되었다. 특히 1998년, 1999년, 2000년에 각각 3교씩 총 9개 학교가 이 3년 동안 폐교되었다.

폐교 건물이 활용되고 있는 17개 사례에 있어서, 활용 시작 연도를 보면, 2002년 2교를 시작으로 2003년 1교, 2006년 3교, 2007년 2교, 2009년 1교, 그리고 2010년 이후 8교이다. 폐교 이후 재활용되기까지의 시간적 간격을 보면, 폐교 1년~3년 사이에 활용되기 시작한 경우가 6교, 6년~10년이 5교, 10년~16년 후에 활용된 경우가 6교이다. 우리나라 지역개발사업이 본격화된 것이 2000년 이후이므로 이른 시기에 폐교된 경우는 그만큼 방치기간이 길었으며, 따라서 폐교 발생자체가 최근으로 올수록 방치 기간도 짧아졌다.

17개 사례의 폐교 재활용 배경이나 동기를 보면<Fig. 2>, 폐교 후 1년~3년 내에 재활용되는 경우는 마을에서 폐교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폐교 이전부터 폐교 이후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경우는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마을공동체나 주민협의체가 비교적 활발하게 작동되는 마을이다. 정부의 지역개발사업에도 관심이 높기 때문에 폐교 재활용을 위해 정부지원 사업에 도전한다. 고래산마을(NO.5), 백산마을(NO.10), 토고미마을(NO.15), 화본마을(NO.17), 대야도마을(NO.19)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폐교 후 비교적 짧은 시기에 활용되기 시작했지만, 정부지원사업이 활용의 출발 계기가 되지 않은 경우이다. 마을리더의 개인적 열정과 노력으로 시작한 경우인데 영주소백산예술촌(NO.3)이 이에 해당한다.

5년 이상 지난 후, 폐교 활용이 시작된 마을들은 ‘폐교의 방치로 우범 장소로 전락, 마을의 골칫거리로 존재’하고 있었다고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방치되었던 폐교가 활용되기 시작한 계기를 4가지로 구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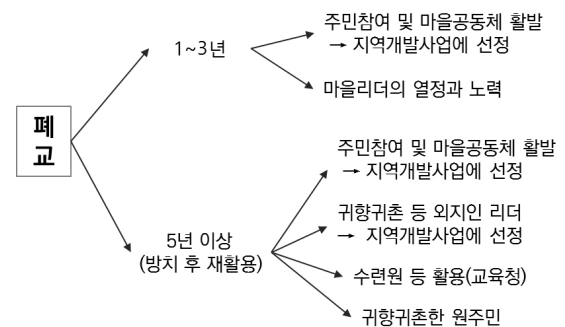


Fig. 2. Opportunity in revitalization of closed schools

- 6) 조금주, 지역사회 소규모학교 살리기 정책 방향과 해결과제,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9(2), 2019, pp.99-111.
- 7) 박계식, 교육공동체의 자율과 참여를 통한 소규모학교 발전 가능성 모색,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론, 2007.
- 8) 임선빈, 학교역할에 관한 구성원의 인식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론, 2015.
- 9) 최종성, 농촌학교의 활성화 요인 분석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론, 2014.
- 10) 변경화, 폐교를 활용한 체험활동 숙박시설의 공간계획 분석,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6(5), 2015, pp.111-119.
- 11) 김중재·손석의, 학교시설과 지역시설과의 기능분담을 통한 복합화 가능성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시설학회지, 13(4), 2006, pp.24-30.
- 12) 황성혜·박수빈, 학교시설 복합화를 위한 지역주민의 요구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1(5), 2010, pp.125-135.
- 13) 김미향, 학교와 지역사회 간 연계·협력에 기반한 마을교육공동체의 개념 탐색, 평생학습사회 6(1), 2020, pp.27-52.

Table 1. Revitalization and status of closed schools in villages that have won "Contest for Making Happy Rural Communities"

NO.	신청마을명 또는 시설명	광역시도	기초 지자체	폐교 및 학교 통폐합 개요			활용 시작 연도	현재 시설명 및 용도	농촌농촌만들기 콘테스트 수상개요			비고
				학교명	설립 연도	폐교사 발생연도			연도	수상	분야	
1	운학삼돌이 마을	강원	영월군	운학분교	1934	2000	2015	삼돌이학교 (귀농귀촌학교)	2022	금상	문화·복지	2014입선 (경관·환경)
2	이서커뮤니티 센터	전남	화순군	화순동명중 이서분교	-	2008	2017	이서커뮤니티 센터 (농촌유학)	2021	금상	빈집·유휴 시설활용*	교육공동체법인, 뽕모실영농조합법인
3	영주소백산 예술촌	경북	영주시	부석북부초	-	2001	2002	영주소백산 예술촌	2021	입선	빈집·유휴 시설활용*	문화예술창작소 문화학교
4	목화마을	전남	곡성군	겸면초교	1931	2004	2014	한마음센터 (체험활동 운영)	2020	입선	소득·체험	운영(영농조합법인) 농어촌인성학교
5	고래산마을	경북	영덕군	영해초 축산분교	1932	2011	2014	고래산마을 놀이체험장	2020	은상	경관·환경	고래산경관지킴이연구소 농촌체험장 및 캠핑장
6	웃다리 문화촌	경기	평택시	서탄초 금각분교	1954	2000	2006	웃다리문화촌 (문화예술체험활동)	2020	금상	빈집·유휴 시설활용*	운영주체 (평택문화원)
7	빙기실마을	경남	거창군	복상초 병곡분교	1945	1998	2007	달빛고운 병곡캠핑장	2019	금상	소득·체험	폐교부지 활용 2018입선(소득·체험)
8	화산마을	경북	군위군	고로초 화산분교	1961	1997	-	개인소유	2019	금상	경관·환경	소유권 분쟁 (미활용)
9	무릉2리 마을	제주	서귀포시	무릉초 무릉동분교	1965	1994	2006	체험 및 농산물 직거래장	2018	은상	소득·체험	자생생태문화체험장 → 복합문화농장
10	백산마을	경남	밀양시	백산초	1946	2014	2016	생활문화센터	2018	금상	문화·복지	2000년 통폐합반대 백산두레영농조합법인
11	오산마을	경남	거창군	하성초	1939	1999	2013	하성 단노을 생활문화센터	2017	은상	문화·복지	2014입선(문화·복지) 문화이모작사업
12	매계마을	경남	하동군	매계초	1946	1998	2007	학생야영 수련원	2016	금상	경관·환경	교육청 운영(※)
13	청옥산계비 마을	강원	평창군	미탄초 청옥분교	1969	1998	2013	체험 및 캠핑장	2015	입선	경관·환경	부지 매입
14	코스모스 마을	충북	괴산군	문광초 덕평분교	1935	2011	-	매각협의 (괴산군)	2015	입선	경관·환경	건물안전진단
15	토고미마을	강원	화천군	신평초	1944	2000	2003	토고미자연 (체험)학교	2015	동상	소득·체험	정보화마을
16	호롱불마을	전북	무주군	기곡초	1944	1993	2009	호롱불수련원	2015	입선	소득·체험	정보화마을
17	화분마을	경북	군위군	산성중	1954	2009	2010	‘엄마아빠 어렸을 적에’ 체험박물관	2015	입선	소득·체험	1960-70년대 생활상 테마 박물관
18	서각마을	강원	홍천군	울진초 광문분교	1953	1999	2006	서각체험·작업 및 갤러리	2015	입선	문화·복지	정보화마을
19	대야도마을	충남	태안군	안중초 대야도분교	일제 시대	1999	2002	공예체험활동	2014	입선	문화·복지	공사 중(뉴딜300) 폐교매입

5년 이상 폐교가 방치된 후 활용되는 사례를 보면, 지역개발 사업이 전국적으로 추진되면서 주민참여도 활발해지게 되면서이다. 또는 귀향귀촌인구가 증가하면서 이들이 방치된 폐교 활용을 제안하고 정부지원사업에 도전하는 등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회를 제공하였다. 귀향귀촌인은 해당마을에서 태어나서 타지에서 생활하다 귀향한 경우도 있지만, 해당마을과 연고가 없는 외지인인 경우도 있다. 외지인의 경우는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폐교 활용이 시작되는 반면, 귀향인은 정부지원사업과 관계없이 폐교에 관심을 갖고 먼저 활동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귀향인에게 폐교가 모교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방치 후 교육청에서 활용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1982년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으로 전국적으로 폐교가 증가하게 되자, 교육부는 1999년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약칭, 폐교활용법)’을 제정하여 폐교의 매각, 임대 등을 용이하게 하였다. 그러나 폐교의 활용보다는 매각이 용이했고, 매각되지 못한

폐교는 방치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지역의 한 언론에서는 그동안 폐교에 대해 도교육청은 매각·임대에만 급급할 뿐 사후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 매각·임대된 폐교들을 개인사업자들이 입맛에 맞는 용도로 활용한다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규제할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교육청들이 매각에만 앞장서왔다. 특히 매각·임대된 폐교가 지역과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교육 재정 확보나 외지인들의 사업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매각이 능사냐’는 굵지 않은 시선을 받아왔다고 보도하고 있다.<sup>14)</sup>

우리나라는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이 분리되어 학교시설은 교육청 소유이다. 지역활성화를 위해 폐교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과 교육청간 긴밀한 연계협력이 필요했다. 지역개발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방치된 폐교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과 폐교

14) 새전북신문, ‘도교육청, 폐교 매각대신 활용방안 모색’, 2010.10.28.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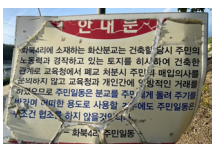
Fig. 3. Using cases of building and land in closed schools

활용법 개정을 통해 교육청도 폐교 재활용에 관심이 높아졌다.

하동군 매계리의 매계초등학교(NO.12)의 경우, 1998년 폐교되어 2007년부터 교육청에서 청소년수련원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최근 매계리마을회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 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다.

미사용 기간이 가장 긴 16년인 무주군 호룡불마을(NO.16)은 가장 이른 시기인 1993년 폐교 되었다. 2009년 산촌생태체험마을에 선정되어, 교육청으로부터 폐교를 매입해서 사용하고 있다. 폐교재산이 교육청 소유이지만 지역자원으로서 폐교 활용 방안을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모색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렇게 마을에서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매입비용이 적지 않으므로 주로 지자체에서 구입하여 마을회가 다시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앞서 언론에서 지적했지만, 1999년 폐교활용법의 제정으로 매각과 임대 등 폐교 재산 처분이 용이해졌지만, 이 과정에서 폐교된 학교에 대한 설립배경이나 학교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고려는 미흡했던 사례도 있다. 군위군 화산마을의 화산분교(NO. 8)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현재까지도 화산분교는 사용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다.



… 화산분교는 건축할 당시 주민의 노동력과 경작하고 있는 토지를 하사하여 건축한 관계로 교육청에서 폐교 처분시 주민의 매입의사를 문의하지 않고 교육청과 개인간에 일방적인 거래를 하였으므로 주민일등은 분교를 주민에게 돌려주기를 바라며 … (생략)

Fig. 4. Opinion of residents on disposition of the closed school

코스모스마을(NO.14)은 「2015년 수상 마을 사례집」에는 마을 중심의 폐교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유일의 코스모스 박물관 건립을 위해 마을 공동체가 코스모스 관련된 자료 수집과 정리

에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폐교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해당 지자체가 교육청과 매입 관련 협의가 진행 중에 있는데, 건물의 안전진단 등이 이루어져야 매각 금액 등이 결정되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폐교가 된 후 활용 때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분리도 그 원인의 하나라 보여진다.

활용되고 있는 17개 폐교의 용도는 <Table 2>와 같이 주로 체험활동과 생활문화시설로 이용되고 있다. 폐교가 시설 당 기능이 1:1로 매칭되는 것이 아니라 체험, 생활문화, 문화복지 등 다양한 기능들이 폐교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보다 큰 범위에서 보면, 주민들의 생활문화복지시설의 용도로 수렴된다.

Table 2. Practical application of closed schools

기능	폐교 수	비고
마을학교	2	귀농귀촌학교, 농촌유학
체험활동	6	어린이, 청소년 등 대상
생활문화시설	5	주민문화복지
캠핑장	2	어린이, 청소년 등 대상
수련원	2	1사례(도교육청 운영)
합계	17	

폐교 활용에 대한 해외 사례를 보면, 폐교를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의 의료복지시설, 방과 후 교실 등 보육시설, 기업·창업지원시설, 연구소, 지자체 활용 등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폐교 활용과 운영이 지역주민중심의 마을법인체가 주체가 되는 경우가 많아, 마을법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용도가 정해지고 있다.

콘텐츠 수상분야를 기준으로 용도를 보면, 문화·복지 7개, 소득·체험 7개, 경관·환경 3개로 나타났다.<sup>15)</sup> 용도가 문화·복지,

Table 3. Status of activities for invigoration of the Small-scale School

NO.	마을명	광역시도	기초지자체	학교명	설립연도	변화	농촌농촌만들기 콘테스트 수상개요			활동내용
							연도	수상	분야	
1	복일면	전남	해남군	복일초	1922	2022.8월 63명	2022	빈집·유휴시설활용	은상	초등학교 학생 증원을 위해 방치되고 있는 빈집 활용
2	세월리 달강마을	경기	양평군	세월초	1946	2008 학생수 2배 증가	2021	문화·복지	은상	마을학교 축제의 지속적 운영(12년)으로 젊은이들이 들어와 살고 싶은 마을조성
3	송악면	충남	아산시	3개 학교 : 혁신학교 2개 학교(10년) 120명 → 360명			2021	지역개발사업	동상	‘마을이 학교다’ 마을 교육 공동체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젊은 농촌마을
4	보발1리마을	충북	단양군	가곡초 보발분교	1945	폐교위기 극복	2020	문화·복지	은상	보발분교 활성화위원회 발족 문화·복지 동아리와 주민화합축제 운영
5	귀덕1리마을	제주	제주시	귀덕초	1940	60명→90명	2019	문화·복지	입선	행복주택 8세대 신축 귀농인 빈집 빌려주기
6	수희마을	충북	충주시	수희초	1944	폐교위기 극복	2016	문화·복지	입선	1998년 폐교위기에 수희초교 살리기 추진위원회 조직
7	한드미마을	충북	단양군	가곡초 대곡분교	1954	12명(2007) 45명(2014)	2015	소득·체험	은상	교육환경 개선과 생태체험 연계 농촌유학으로 마을의 ‘젊은’ 층 증가
8	모꼬지마을	경기	양평군	조현초	1947	300여%증가 (2009년 대비)	2014	문화·복지	은상	2009년 ‘혁신학교’ 지정, 평범한 농업공동체를 이주민과 함께하는 ‘가족복지문화공동체’로 변화

소득·체험, 경관·환경으로 구분되었지만,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생활문화, 체험, 복지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가능하면 마을 소득과 연결되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노력하고 있다.

주민들은 학교를 지역의 생활문화의 구심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럼에도 학교가 폐교되면 적어도 건물이라도 남아있기를 희망하면서 폐교 활용에 노력하고 있으며, 폐교 활용의 노력 과정 자체가 커뮤니티 활성화로 연결되고 있다.

### 3.2 학교살리기 운동을 통한 지역활성화

학교는 마을공동체의 공간적·정신적인 구심체로서 기능을 한다. 그러한 학교가 학생수 감소로 인해 폐교될 조짐이 보이면, 지역주민들은 폐교 직전의 학교를 살려내기 위해 노력한다. 학교의 존재여부는 지역사회와 마을공동체의 생존과 동일시된다.

본 연구에서도 폐교 조짐이 보이자 학교살리기 활동을 추진해 폐교위기를 극복한 마을이 8개 있다<Table 3>.

폐교 직전의 학교를 살리기 위해 주민들이 모이고 논의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공동체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그리고 폐교 위기를 극복한 이후에는 그 경험을 공유하면서 마을비전을 새롭게 수립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복일면 소재의 복일초등학교 경우, 개교 100주년을 앞두고 폐교 위기에 직면해 주민자치회의 제1과제로 학교살리기를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방치되어있는 빈집을 활용해 젊은 학부모를 유입하고 그들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했다. 이후 지역살리기로 확장하여, 전통시장 살리기 등 마을 가꾸기를 추진했다.

세월리 달강마을은 세월초등학교의 폐교 문제가 발생한

2000년 초반부터 동문과 주민들이 학교살리기를 노력했지만 큰 효과를 내지 못했다. 2008년 학교 선생님들이 마을학교 축제를 기획하면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2015년부터는 원주민과 후주민이 함께하는 양평군 어울림 공동체 활동으로 확장되었다. 2020년 경기도 유휴공간 문화재생 지원사업으로 마을의 옛 ‘정미소’가 ‘커뮤니티센터 세월정미소’로 개관하여 마을활력 활동의 중심지가 되었다.

송악면은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으로 유명한 지역으로 마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것은 ‘마을이 학교’라는 모토 아래, 지역 내의 다양한 예술가, 장인, 어르신들을 마을 교사로 발굴하여 지역 내에서 서로 배우고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지역 주민들이 인적 자원이 되어 10여 년 이어온 배움이 마을의 자산이 되어 마을 인생학교, 작업장 학교로 발전하여 지역 내 다양한 배움 공간을 만들어 동아리 활동과 사회적 협동조합을 형성하고 있다.

보발1리마을은 7개 자연부락으로 구성된 농촌마을이다. 보발분교의 폐교에 직면해, 마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발분교 활성화위원회를 발족하고 활동하여 학교를 지켜냈다. 이 활동을 토대로 주민들은 마을지키기를 넘어 쓰레기 문제, 경관개선 등 마을가꾸기 활동으로 확장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재능기부로 문화복지 동아리 활동을 조직하여, 마을주민들이 교육을 담당하는 평생교육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귀덕1리마을은 학교살리기의 일환으로 행복주택(8세대) 신축과 귀농인 빈집 빌려주기 사업을 추진했다. 행복주택 건립을 위해 주민들이 직접 모금 활동을 진행하여 약 3억 원을 모았고, 그러한 노력으로 60여 명이던 학생 수가 90여 명으로 늘어났으며, 이와 함께 주민도 100명 정도 증가했다. 마을에 외지인이 유입되면서 원주민과 이주민이 만나는 ‘귀덕 밤마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커뮤니티 활성화와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

수희마을은 1998년 수희초등학교의 폐교 위기에 직면해 추

15) 수상분야에 농촌만들기의 ‘농촌빈집·유휴시설활용 우수’에 해당하는 3개 사례가 있으나, 신청내용을 토대로 2개 사례는 문화·복지로, 1개 사례는 소득·체험으로 포함시켜 집계하였다.

진위위원회를 조직, 학교살리기 활동을 시작했다. 주민들은 도시민 유입을 위한 홍보활동을 하고, 수희초등학교 측은 다양한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동문회는 시내서틀버스 운영을 지원했다. 주민의 열정, 학교의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 개선된 교통편 등으로 귀촌인이 증가하여 2023년 현재까지도 수희초가 유지되고 있다.

한드미마을은 생태체험마을 사업으로 방문객과 마을소득이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지만, 주민수의 정체와 고령화 문제에 직면했다. 이의 해결을 위해 ‘농촌유학’ 사업을 목표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젊은층을 유입했다. 젊은 세대의 마을사업 참여로 생태체험사업이 활력을 되찾고 ‘농촌유학’과 연계한 프로그램 내용이 다양화되고 체계화되었다. 이로 인해, 일자리까지 창출되는 등 체험마을로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모꼬지마을은 ‘작은학교 살리기 운동’을 전후로 평범한 농업공동체를 이주민과 함께하는 ‘가족복지문화공동체’로 변화시켰다. 주민 총동문화에서 ‘작은학교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여 폐교 직전이었던 조현초교가 2009년 ‘혁신학교’로 지정되고 ‘문화예술 선도학교’로 선정되는 등 오히려 학교가 성장하였다. 이를 계기로 마을에 존재하던 양평군 쓰레기장을 주민 스스로 자연휴식지로 변화시켜 문화예술체험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폐교 위기에서 학교살리기 활동을 추진한 8개 마을의 사례를 정리하면, 5개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학교살리기를 위해 추진위원회 등을 새롭게 구성하여 활동을 하고 있다. 이는 폐교 위기가 그 동안 관성적으로 존재하던 마을조직을 정비하는 계기가 되고, 학교살리기 활동 이후에도 마을 사업 등을 위한 조직적 토대가 되었다.

둘째, 학교살리기 활동 자체가 마을주민들의 집단학습, 집단경험의 계기가 되었다. 활동 과정의 시행착오와 획득되는 공동체 경험은 이후 마을사업이나 커뮤니티 활성화에 있어서 마을 나름의 실행방식의 토대가 되고 있다.

셋째, 실질적으로 폐교를 막고 학교를 유지하는 성과를 거둔 경우에는 인구가 증가했다. 인구 증가는 곧 외지인 유입을 의미한다. 학교 존속을 위해 현지인과 외지인의 ‘공생’을 마을 스스로 찾아내고 있다. 외지인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주거지원이나 일자리를 지원을 모색하고 함께하는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문화공동체 활동으로 연결되고 있다.

넷째, 주민들의 역량이 강화되었다. 선주민의 공생을 위해 생활문화, 복지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면서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교사가 되는 등 마을교육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다섯째, 학교살리기 목표를 정하고 활동하면서 주민들 스스로 새로운 목표를 만들어 실천하고 있다. 새로운 목표는 마을공동체 관점에서 속의를 통해 결정되고 있으며, 그것이 커뮤니티 활성화에 중요한 의의가 되고 있다.

### 3.3 마을 외부의 학교와의 연계활동

앞선 절에서는 마을 내 학교시설로서 폐교 활용과 학교살리기에 대해서 정리했다. 본 절에서는 마을 외부에 존재하는 학교와의 연계활동에 대해서 분석했다<Table 4>.

Table 4. Linked activities to schools located outside villages

구분	내용 및 사례
인적지원 및 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수) 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대학교수 등 자문</li> <li>• (대학생) 인근 대학과 MOU 및 재능나눔체결, 주말농장체험 및 일손돕기, 벽화동아리 등의 마을환경 개선 지원</li> <li>• (인근 학교의 학부모) 문화·예술 관련 재능기부</li> </ul>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학생 자유학기 프로그램, 초·중등 현장학습 프로그램, 중학교와 MOU체결, 친환경농업체험활동</li> </ul>
공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과 후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 참여</li> <li>• 방치된 빈집 리모델링을 학습공간으로 활용, 방과 후 공부방 등</li> </ul>

마을 외부에 존재하는 학교와의 연계는 크게 사람, 프로그램, 공간으로 구분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각각 분리되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계되어 마을 활성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

먼저 사람과 관련되어 살펴보면, 외부에 존재하는 학교나 대학 등의 전문가, 대학생, 학부모 등과의 연계이다. 교수들과의 연계는 마을계획 및 비전수립 등의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전문가로서 자문 등의 의견을 구하고 있다.

대학생들과는 MOU체결, 재능나눔체결 등의 형식적 절차를 거치기도 하는데, 주말농장체험 및 일손돕기, 그리고 벽화동아리, 화분가꾸기 등의 노하우를 활용해 마을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죽월마을(경남 밀양시), 상덕마을(경기 용인시), 도북마을(경남 함양군), 서경들마을(경기 이천시) 등이 울산대학교, 동서대학교, 용인대학교, 용인바이오고등학교, 인천재능대학 등의 대학생들과 연계해서 마을활성화 활동을 함께 진행했다.

마을 인근 학교의 학부모들과의 연계 사례를 보면, 생활문화와 관련된 재능과 취미활동 등을 통해 마을 주민들과의 교류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북 완주군 ‘그림책공감’으로 콘테스트에서는 ‘농촌빈집·유휴시설 우수’ 분야에서 수상한 사례이다. 지역의 미활용 시설에 공동체 의식을 지닌 청년활동가(공감독서회)가 들어오면서 그림책 교육·문화공간으로 변화하였다. 이 ‘그림책 공감’은 소양면 대흥마을의 송광초 학부모들의 주축인 ‘공감독서회’가 운영하고 있다. 그림책을 매개로 세대간 소통과 공감을 이끌어내고 지역문화 생태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있다.

마을 외부의 학교들과의 관계에서 이와 같이 ‘사람’과 관련해서는 전문적 지식, 재능을 가진 마을 외부의 인적자원이 마을 활성화, 환경개선 등을 위해 지원을 받고 있다.

프로그램과 공간지원 측면은 주변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을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간지원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삼거마을(경남 거제시)의 경우, 30여명의 마을인력이 각 체험분야별 전문적 교육을 통해 중학생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초·중등 현장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충남 논산시의 황금빛마을은 우리 농산물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강경중학교와 MOU를 체결하여 200명씩 2회에 걸쳐 친환경농업체험활동을 진행하였다.

공간지원 사례를 보면, 충북 옥천군의 동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조성된 건물의 행복동에서 아동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방과 후, 동이초 아이들이 학원이나 활동 공간이 부

족한 상황에서 행복동의 작은도서관에서 돌봄의 공백을 메우며 아이들의 통합돌봄과 어린이신문 제작 등 다양한 교육과 문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농촌마을 초등학교 학생들의 문화서비스 혜택을 향상하기 위해, 동이면 금강수계 주민사업비로 ‘행복 복동이 마을버스’를 구입했다. 배후마을 등 22개 마을로 각종 생활 서비스가 이 마을버스로 연결되고 있다.

충북 괴산군 청천면 솔맹이골에서는 2005년 수녀들이 방치되었던 식당 건물을 임대하여 학습공간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후 2008년 학부모들이 운영 조직을 만들어 외부지원 없이 자발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 3.4 마을학교

폐교 활용, 학교살리기 운동, 그리고 마을 외부에 존재하는 학교들과의 연계활동은 모두 제도권 학교와 관계되는 활동이다. 마을에서는 이러한 제도권 학교가 아니면서도 ‘마을학교’라는 명칭으로 각종 교육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다. 마을학교는 자발적 학습활동으로 개인의 지적 능력이 향상되기도 하지만, 학습참여를 통해 자연스럽게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계기가 된다. 그리고 마을학교 참여는 일회성이 아닌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커뮤니티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중앙부처 지원으로 추진되는 ‘마을학교’ 사업을 보면, 먼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농어촌인성학교이다. 본 연구 대상의 마을에서 진행되는 농어촌인성학교는 마을 특성과 문화에 따라 전통, 예절, 문화의 내용으로 프로그램이 이루어져 있다. 문체부는 문화학교, 문해학교, 한글학교 등이 있는데 특히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교육청의 온마을학교는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문화, 예술, 진로, 환경, 인권, 창의 체험 등 다양한 분야를 가르치는 마을연계 방과 후 교육활동이다.

이외에 마을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선애빌마을(충북 보은군)의 ‘여행학교’, 정양리마을(경북 상주시)의 마을귀농학교, 백화마을(충북 영동군)의 두꺼비학교 등은 마을 특성과 여건을 살려 운영되는 마을학교이다. 특히 두꺼비학교는 2012년 ‘전원마을사업’을 통해 형성된 마을에 입주하는 주민들의 ‘입주민 준비학교’로 새롭게 유입되는 주민들의 사전커뮤니티 활동이다.

마을학교를 움직이는 핵심요소는 주민의 학습하기, 관계 맺기, 참여하기이다. 이 요소들은 개별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한다. 주민이 이웃과 함께 학습함으로써 사회적 관계를 맺게 되고 자연스럽게 마을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학습은 사회적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주민들이 그들의 지역사회를 만들고 발전시키기 위해 지역사회에 참여한 결과물이다.<sup>16)</sup>

우리나라는 ‘학교’와 ‘교육’에 매우 깊은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문화를 갖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학교’는 자연스럽게 주민들을 참여하고 관계맺기를 실현할 수 있는 의미있는 매개체이다.

16) 김중산·이희수, 개념지도에 근거한 마을학교 정체성 연구, 평생교육학연구 21(2), 2015, pp.73-107.

Table 5. Programs of village schools

구분	내용 및 사례
중앙 부처 사업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인성학교 운영 - 전통, 예절, 문화 등</li> <li>• (문체부) 성인문해학교, 한글학교, 문화학교, 보령서각체험학교</li> <li>• (교육청) 온마을이음학교</li> </ul>
자체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아숲학교, 어린이 숲학교</li> <li>• 마을귀농학교, 대안학교, 여행학교</li> <li>• 평생교육원, 인성교육, 효도교육, 친환경농업교육 등</li> <li>• 입주민 준비학교 - 두꺼비 학교</li> </ul>

마을학교 활동이 커뮤니티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을의 주민역량강화 사업에 ‘○○마을학교’라는 명칭으로 진행하면, 사업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참여율이 높다. 마을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던 주민들도 학습활동에는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둘째, 실질적으로 학습과 교육적 효과가 있어, 개인의 능력향상에 기여한다. 특히 배움의 기회를 놓친 어르신들에게 한글학교 등은 인기가 매우 높다. 충남 부여군의 송정그림책마을, 어로1리마을의 성인문해교육, 금남리마을의 한글학교인 ‘매봉서당’이 사례이다. 기초적인 한글과 산수 교육, 그림그리기 등을 통해 개인의 자존감을 높이고 삶의 만족도도 높이고 있다.

셋째 마을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과 교사가 필요하다. 마을학교의 지속을 위해서 주민들 스스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민이 교사가 되어 활동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마을공동체 역량 자체가 향상되고 있다.

### 4. 지역활성화에 있어서 학교의 의미

우리나라에서 학교는 공간이나 건축 등의 물리적 환경이나 시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학교는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장소와 공간이면서도 존중받는 가치가 함유된 문화적 거점이다. 학교는 마을의 영속성과 관계되기 때문에 학교가 사라진다는 것은 마을이 사라진다는 것으로 주민들은 인식한다.

그래서 학생수 감소로 ‘학교 통폐합’, ‘학교의 축소’는 ‘마을의 축소’로 인식하여 폐교 위기에 직면한 마을에서는 학교살리기가 가장 큰 과제가 된다.

학교살리기 운동, 폐교 재활용, 그리고 마을학교 등 마을에서 운영되는 각종 학교프로그램이 마을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에 의한, 마을 활력과 활성화는 단순히 학교자체가 유지된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마을 조직 형성, 집단학습과 경험을 통한 공동체성 강화, 지역의 문제 해결 능력을 자연스럽게 향상시킨다.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들어서면서 학생이 감소함에 따라 고령자용 시설은 사회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사회적 수요만으로 사회적 시설이나 인프라 정비를 맞춘다면 일정한 인구범위 내에서 취사선택하여 시설을 계획하게 된다. 학생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학교가 통폐합되는 것은 학교를 사회적 수요만으로 결정하기 때문이다.

학교는 아동이나 학생 등 지역사회의 후계자를 보육·육성하



는 시설이며, 더 나아가 주민들의 평생교육 시설이며 문화복지 시설이다. 그리고 이제는 공동체 활성화라는 역할이 추가된다. 지역사회에서 학교의 의미와 역할 기인할 때, 학교를 사회적 수요만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수요를 창출하는 시설'로서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학교는 시대를 초월한 보편 시설로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관점에서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능동적인 시점에서 다루어야 한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학교'를 매개로 한 주민들의 활동을 파악하고, 커뮤니티 활성화에 있어서 '학교'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실증적 검토를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수상마을 사례집」총 9권을 검토하였다. 폐교 활용, 학교살리기 활동, 마을 외부의 학교와 연계한 활동, 그리고 마을에서 진행되는 각종 마을학교사업 및 프로그램 등 학교와 관련하여 커뮤니티 활동을 추진한 마을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에서 수상한 204개 마을에서 폐교가 발생된 마을은 19개이며, 이 중 폐교 건물이 현재까지 존재하는 경우는 17개 마을, 2개 마을에서는 건물은 존재하지 않고 부지만 남아있다. 주민들은 학교를 지역의 생활문화의 중심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럼에도 학교가 폐교되면 적어도 건물이라도 남아있기를 희망하면서 폐교 활용에 노력하고 있으며, 폐교 활용의 노력 과정 자체가 커뮤니티 활성화로 연결되고 있다. 폐교는 주로 체험활동과 생활문화시설로 이용되고 있다. 폐교 활용과 운영이 지역주민중심의 마을법인체가 주체가 되는 경우가 많아, 마을법인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용도가 정해지고 있다.

폐교 위기에서 학교살리기 활동은 마을의 조직을 재정비하고, 이후 마을 사업을 위한 조직적 토대가 되고 있다. 그리고 학교살리기 활동을 주민들이 함께 진행하면서 획득한 경험은 공동체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폐교 위기를 극복하여 학교유지에 성과를 거둔 마을은 외지인이 유입되어 인구가 증가하였다. 따라서 외지인 유입은 학교 존속과 마을존속에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원거주민들은 이들의 주거와 일자리 등을 지원하기도 한다. 더 나아가 원거주민은 이들의 공생을 위한 생활문화, 복지 등 공동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다. 학교살리기 활동 자체가 커뮤니티 활성화와 성장에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마을 외부에 존재하는 학교와의 연계는 크게 사람, 프로그램, 공간으로 구분되는데, 이것은 각기 분리되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계되어 마을 활성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학교와 교육의 가치에 깊은 의미를 부여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마을에서 운영하는 각종 마을학교들은 지역 활성화에 있어서 유용한 기제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마을학교는 주민들의 학습활동을 통해 개인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실제로 배움의 시기를 놓친 어르

신들에게 한글학교 등은 개인의 자존감을 높이고 삶의 만족도도 높여준다. 그리고 마을학교를 통해 주민들을 자발적으로 학습활동에 참여하게 되어, 공동체 활동의 참여 기회를 높여주고 있다.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하고 관계맺기가 이루어져 커뮤니티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학교는 물리적인 교육 장소뿐 아니라 문화와 역사를 연결하는 세대를 길러내는 역할을 한다. 최근에는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역교육공동체로서 지역과 학교와의 관계가 상호 연계·협력하고 있다. 지역활성화에 있어서 학교라는 물리적 공간, 세대연결이라는 교육적 측면, 지역교육공동체를 포괄하여, '수요를 창출하는 시설'로서 학교의 의미와 가치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

## 참고문헌

1. 김미향, 학교와 지역사회 간 연계 협력에 기반한 마을교육공동체의 개념 탐색, 평생학습사회, 6(1), 2020.
2. 김승제, 손석의, 학교시설과 지역시설과의 기능분담을 통한 복합화 가능성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시설학회지, 13(4), 2006.
3. 김종선, 이희수, 개념지도에 근거한 마을학교 정체성 연구, 평생교육학 연구, 21(2), 2015.
4. 박계식, 교육공동체의 자율과 참여를 통한 소규모학교 발전 가능성 모색, 한국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5. 방택훈, 김기환, 학교시설 다목적강당의 지역주민이용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부산시내 초중교 중심으로, 한국교육시설학회지, 13(3), 2006.
6. 변경화, 폐교를 활용한 체험활동 숙박시설의 공간계획 분석,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6(5), 2015.
7. 변경화, 김승근, 제주도 농촌지역의 소규모학교 살리기를 위한 마을임대 주택사업과 빈집사업 현황고찰,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20(4), 2018.
8. 이화룡, 학교시설의 공공성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시설학회지, 15(1), 2008.
9. 임선빈, 학교역할에 관한 구성원의 인식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10. 조금주, 지역사회 소규모학교 살리기 정책 방향과 해결과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2), 2019.
11. 최중성, 농촌학교의 활성화 요인 분석 연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12. 황성혜, 박수빈, 학교시설 복합화를 위한 지역주민의 요구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1(5), 2010.
13. 새전북신문, 도교육청, 폐교 매각대신 활용방안 모색, 2010.10.28.
14.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2021.12.31.현재).
15.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시·도교육청폐교재산현황, <http://www.eduinfo.go.kr/portal/theme/abolSchStatusPage.do>
16.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https://www.raise.go.kr/contes>

접 수 일 자 : 2023. 07. 10  
 초 심 완 료 일 자 : 2023. 08. 02  
 계 재 확 정 일 자 : 2023. 08. 17